■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5-68.
http://doi.org/10.17948/kcs.2022..97.35

【 특집 :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2 】

『金石集帖』 수록 불교자료의 역사적 의의*

정병삼(鄭炳三)**

목 차

1. 머리말
2. 『金石集帖』에 수록된 불교자료
3. 『金石集帖』 수록 불교자료의 구성
4. 『金石集帖』 수록 불교자료의 특징
5. 맺음말

국문초록

『金石集帖』은 金在魯 등에 의해 19세기초 무렵에 완성한 금석문 집성 자료로서, 碑의 全面을 수록한 가장 이른 자료집이다. 『金石集帖』은 비면 전체를 수록하여 서예적 특성은 물론 비문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적 의의도 매우 크다. 『金石集帖』은 모두 226책으로 편찬하였는데, 京都大學에 219책이 현존하고 있다. 『金石集帖』에는 34종의 분류 항목 중에서 釋寺라는 항목으로 불교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다. 목록인 『金石錄』에는 11책의 釋寺 항목에 수록된 98종과 釋寺 항목 외의 3종을 포함하여 모두 101종의 불교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는데, 이중 京都大學 소장 『金石集帖』에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은 釋寺 9책의 85종과 그밖의 3종 등 모두 88종이다. 목록 『金石錄』에 수록된 불교자료는 신라 5종, 고려 27종, 조선 69종, 총 101종이며, 京都大學 소장 『金石集帖』에 현존하는 불교자료는 신라 2종, 고려 18종, 조선 68종, 총 88종이다. 이중 眞空大師碑 등 3종은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

『金石錄』에는 존재하나 실물은 없으며, 眞鑑禪師碑 등 4종은 목판 탁본이다. 『金石集帖』에 수록된 신라 고려의 불교자료의 종류는 『金石淸玩』이나 『大東金石書』와 같은 다른 금석집보다 적지만, 조선시대 불교 자료는 『金石集帖』 수록 자료가 월등하게 많다. 『金石集帖』에는 새로운 비문인 용연사 松坡大師碑 등 조선시대 僧碑와 事蹟碑 10종의 신자료가 수록되었고, 비문의 내용은 알려졌지만 탁본이 처음 알려진 자료는 보현사 玩虛大師石鍾銘 등 11종이 있다. 『金石集帖』 수록 자료는 편집과 구성에서 대체로 원형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크다. 『金石集帖』 수록 불교 자료는 새로운 내용과 탁본을 전해주는 자료가 20여 종이나 되어 그 자료 제공의 의의가 크고, 특히 원형에 가깝게 편집함으로써 비의 원모습을 충실히 보여주는 양질의 탁본 자료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금석집첩(金石集帖), 탁본, 금석록(金石錄), 석사(釋寺), 승비(僧碑), 사적비.

1. 머리말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료 수집이다. 흔히 역사적 자료 곧 史料의 예로 드는 『三國史記』와 같은 史書는 체계적이고 정돈된 자료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지만, 실제 사실로부터 길게는 1천 년 이상 간격이 있는 후대에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當代의 상황을 전해주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당대 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金石文 자료이다. 이 때문에 금석문 자료는 사료 중에서 첫손 꼽히는 중요성을 갖는다.[1] 또한 금석문은 당대 최고의 명문장과 명필이 제작한 것이므로 그 문화적 의의 또한 지대하다. 이런 의의를 갖기 때문에 일찍부터 금석문 자료의 수집과 전승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단편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전승해오던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것은 조선후기에 들어서였다. 17세기부터 금석문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한데 모아 편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金石淸玩』이나 『大東金石書』의 편집과 편찬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두 가지(4권본과 10권본)가 남아 있는 『금석청완』은 총 391종의 금석문 자료를 모아 엮었고, 『대동금석서』는

1) 許興植, 『高麗佛教史硏究』, 일조각, 1986, 551-552면.

7첩에 총 301종의 금석문을 모아 편찬하였다.[2] 이 두 금석문 편찬 작업은 동일하게 비문의 일부를 碑面 형태 그대로 잘라 붙여 만든 碑帖 형태이다.[3]

그런데 총 226책으로 편찬하여 2,265점의 탁본을 수록했던 『금석집첩』은 현재 京都大學에 남아 전하는 219책에 총 1,800 여 종의 금석문을 전하고 있다.[4] 『금석집첩』은 金在魯(1682-1759)와 그의 집안에서 만든 비첩이다. 『금석집첩』의 제작은 영조대에 墓道文字가 증가하고 建碑가 증가하면서 碑文의 모델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비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던 시대상과 함께, 燕行을 통해 淸에서 漢隸 탁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묘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사회상을 반영한다.[5] 『금석집첩』은 비면 전체를 한 줄씩 잘라 붙여 비첩을 구성하여, 비의 全貌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서체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지는 『금석청완』과 『대동금석서』에 비해 『금석집첩』은 서예적 특성은 물론 비문 내용의 자료적 의의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의의가 크다.

『금석집첩』의 편찬을 위한 목록인 『金石錄』에는 釋寺라는 분류 항목으로 모두 101종의 불교관련 자료를 수록하였고, 그중에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은 88종의 자료이다.

이 글은 『금석집첩』에 수록된 불교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자료의 시대적 구분을 비롯한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자료 중에 특징적인 자료를 살펴본 후, 여기에 수록된 불교 자료를 현존하는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그 구성과 서지적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6]

---

2) 남동신, 「『金石淸玩』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401면; 남동신 외, 『대동금석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23면에서는 『대동금석서』 수록 탁본이 280여 종, 400여 건이라 하였다.

3) 비면 일부를 모은 것은 금석문 탁본이 法帖과 鑑賞이라는 측면이 강했고, 비면 전체를 모은 것은 금석문 자체의 연구보다는 실용적 측면에서 비석의 건립이 증가하면서 墓碑와 관련된 정보—내용과 형식—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한다.(朴徹庠, 「朝鮮時代 金石學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164면)

4) 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211-248면; 박진완, 「京都大學부속도서관소장 金石集帖 자료현황」, 『해외사료총서』15—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Ⅲ—, 국사편찬위원회, 2007; 朴徹庠, 「朝鮮時代 金石學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5) 朴徹庠, 2014, 같은 글, 82면.

6) 비교 대상에는 자료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藏書閣(한국학중앙연구원), 奎章閣(서울대),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소장 자료를 우선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또 이들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 『금석집첩』과 같은 비첩 형태의 자료와 함께 全拓本 자료도 비교 대조함으로써, 『금석집첩』 수록 자료가

2.『金石集帖』에 수록된 불교자료

『金石集帖』은 34항목 중 마지막 釋寺 항목에 불교자료를 모아 놓았다. 『금석집첩』은 본래 226책으로 편찬하였다. 이중 교토대학에 현존하는『금석집첩』은 222책인데, 이중 3책이 複本이어서 내용상 의미 있는 것은 219책이다. 현존『금석집첩』에 수록된 불교자료는 각 첩의 표지에 표기한 목록으로는 9책에 90종이지만, 실제 현존하는 것은 88종이다.

그런데『금석집첩』을 제작하기 위한 목록으로 추정되는『金石錄』에는 불교자료 곧 釋寺 항목에 11책 101종의 목록을 수록하였다. 따라서 본래『금석집첩』을 완성했던 때의 불교자료는『金石錄』에 제시한 것과 같이 101종의 자료를 수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1책 중에서 앞 2책이 현존하지 않는데, 이들은 모두 신라 고려의 금석문들이다. 이 때문에 현존『금석집첩』수록 불교자료가 고려 이전 자료가 부실하고 조선시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금석집첩』에서 釋寺 항목 외에 불교자료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3종 있다. 御迹 항목에 수록된『金石錄』007(洪)책의 淨業院舊基碑, 凡非墓碑 항목에 수록된『金石錄』176(忘)책의 興天寺鍾銘, 역시 凡非墓碑 항목에 수록된『金石錄』181(靡)책의 永明寺重修碑이다. 淨業院舊基碑는 英祖가 쓴 비이므로 御迹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역시 영조가 쓴 釋王寺記(목록에는 釋王寺藏經碑)는 釋寺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므로, 淨業院舊基碑도 불교자료에 포함된다. 興天寺鍾銘은 비문 자료가 아니므로 凡非墓碑 항목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같은 성격의 演福寺鍾銘은 223(堂)책 釋寺 항목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내용으로는 불교자료에 포함해야 한다.[7] 永明寺重修碑가 凡非墓碑 항목에 남아 있는데, 다른 사찰 중수비는 모두 釋寺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내용 분류가 누락되어 凡非墓碑 항목에 실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갖는 구성적 의미도 살펴보았다.

7) 목록인『金石錄』227(惡)책 다음의 말미에 "平壤永明寺重修碑 興天寺鍾銘(入非墓碑諸紀事卷)"라 하여, 불교 자료인데 非墓碑 항목으로 넣었음을 기술하였다.

釋寺 외의 3종을 포함하여 『金石錄』과 현존 『금석집첩』에 수록된 불교관계 자료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각주 8-11 참고)과 같다.

[표 1] 『금석록』 / 『금석집첩』 수록 불교자료 (▨: 현재 缺 / ▩: 陰記)

시대			합	편목번호			내역
新	高	朝		금석록	京大	국편	
3	2	1	6[8]	217空	▨		靜眞大師碑 朗空大師碑後記 智證大師碑 道詵國師碑陰 普照禪師碑 朗慧和尙碑
	5		5	218谷	▨		法鏡大師碑 智光國師碑 普覺國師碑 圓證國師碑 迷源塔碑
2	1	3	6	219傳	219	190	西山大師碑 松雲大師碑 表忠事蹟碑 眞鑑禪師碑 神行禪師碑 玄化寺碑
	3	4	7[9]	220聲	220	191	先覺大師碑 眞澈大師碑 普賢寺碑 安心寺石鍾碑 道詵守眉碑 鞭羊堂碑
	7		7[10]	221虛	221	192	朗空大師碑 興法寺碑 祭眞樂公文 文殊院記 文殊寺藏經碑 大鑑國師碑 圓應國師碑
	1	11	12	222堂	222	193	淸虛大師碑 鞭羊大師碑 春坡大師碑 奇巖大師碑 松月大師碑 虛白大師碑 楓潭大師碑 虛谷大師碑 湧泉寺古蹟記 演福寺鍾銘 淸溪寺事蹟碑 神勒寺九龍樓重修碑
	1	8	9	223習		198	普照國師碑 指空師浮屠銘 無學師浮屠銘 四溟堂碑 楓潭師碑 文殊塔碑 淸虛堂碑 浩然堂碑 松廣寺事蹟碑
	1	12	13	224聽	224	194	法印國師碑 釋王寺藏經碑 釋王寺藏經事蹟碑 釋迦世尊舍利碑 洛山寺觀音窟碑 通度寺如來舍利碑 高麗山積石寺碑 松坡大師碑 翠微大師碑 普運大師碑 幻夢大師碑 雪松大師碑 天然大師碑
	3	16	19	225禍	225	195	龍門寺重修碑 普光寺碑 普濟尊者碑 神勒寺大藏閣碑 碧巖大師碑 霽月堂碑 翠雲堂碑 碧應大師碑 雪巖堂碑 玩虛堂碑 靈巖堂碑 虛靜堂碑 碧虛大師碑 慈應大師碑 月峯大師碑 月渚堂碑 雲峯堂碑 雲坡大師碑 松坡大師碑
	5	2	7	226因	226	196	圓空國師碑 弘慶寺碣記 弘眞國尊碑 普覺國尊碑 慈淨國尊碑 正智國師碑 寶月寺重修碑
		10	10	227惡	227	197	松廣寺開刱碑 白蓮寺事蹟碑 安心寺事蹟碑 江西寺事蹟碑 護國寺事蹟碑 寶月堂碑 牧羊堂碑 雲坡堂碑 雪峯堂碑 聖齋洞事蹟碑

		1	1	007洪	7		淨業院舊基碑(7-2)
		1	1	176忘	176		興天寺鍾銘(176-7)
		1	1	181靡	181		永明寺重修碑(181-7)
5	29	70	104				金石錄 수록 種數
5	27[11]	69	101				金石錄(陰記를 碑陽에 합친 種數)
2	20	68	90				京都大 目錄 種數
2	18	68	88				京都大 現存 種數

이들 불교자료 목록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이들 자료가 수록된 다른 금석집과 대조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 2](각주 12-25 참고)가 된다.

[표 2] 金石集帖 수록 불교자료 비교표

(▨ : 現缺 / ▨ : 原闕 / ▭ : 일부기존소개 / ▭ : 탁본최초소개 / ▨ : 자료최초소개)

·	金石錄	碑 名		연대	撰者	書者	篆額	수 록[12]					
1	219-5	山淸斷俗寺神行禪師碑	新	813	金獻貞	靈業	·	總附	石苑	·	集成	淸玩	大東
2	217-5	長興寶林寺普照禪師碑	新	884	金穎	金遠	金遠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3a	219-4a	河東雙磎寺眞鑑禪師碑	新	887	崔致遠	崔致遠	崔致遠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3b	219-4b	河東雙磎寺眞鑑禪師碑 木[13]	新	1725	崔致遠	鵬澤綴	廣先刻					淸玩	
4	217-6	保寧聖住寺朗慧和尙碑	新	890	崔致遠	崔仁滸	·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5	217-3	開慶鳳巖寺智證大師碑	新	924	崔致遠	慧江	·	總覽	石苑	大系	集成		大東
6	220-2	海州廣照寺眞澈大師碑	高	937	崔彦撝	李奐樞	李奐樞	總覽	石苑	·	集成	淸玩	大東
7	221-2	原州興法寺眞空大師碑 無[14]	高	940	太祖	集太宗	·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8	218-1	忠州淨土寺法鏡大師碑	高	943	崔彦撝	仇足達	·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9	220-1	康津無爲寺先覺大師碑	高	946	崔彦撝	柳廉律	·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10a	221-1	奉化太子寺朗空大師碑	高	954	崔仁滸	集金生	·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10b	217-2	奉化太子寺朗空大師碑陰[15]	高	954	純白		·	總覽	石苑	大系			大東

8) 朗空大師碑後記는 221(虛)책에 수록된 朗空大師碑의 陰記이다. 따라서 朗空大師碑와 합쳐 1종으로 헤아려야 한다. 道詵國師碑陰은 220책(聲)에 수록한 道詵守眉碑의 陰記이다. 따라서 道詵守眉碑와 합쳐 1종으로 헤아려야 한다.

9) 安心寺石鐘碑는 1384년에 건립한 原碑와, 1711년에 黃自顯이 模刻한 新碑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 둘은 내용은 같지만 시기가 다른 자료이므로 따로따로 헤아려야 한다.

10) 목록에서는 祭眞樂公文과 文殊院記를 따로 제시했는데, 祭眞樂公文은 文殊院記의 陰記이다. 따라서 1종으로 합쳐 헤아려야 한다.

11) 朗空大師碑와 음기 朗空大師碑後記, 文殊院記와 음기 祭眞樂公文을 합쳐 헤아리면 27종이 된다.

11	217-1	開慶鳳巖寺靜眞大師碑	高	965	李夢游	張端說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12	224-1	瑞山普願寺法印國師碑	高	978	金廷彦	韓允	韓允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13	219-6	開城玄化寺碑 陰	高	1021	周佇	蔡忠順	蔡忠順	總覽	石苑		集成	淸玩	大東
14	226-1	原州居頓寺圓空國師碑	高	1025	崔沖	金巨雄	金巨雄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15	226-2	天安奉先弘慶寺碣記	高	1026	崔沖	白玄禮	白玄禮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16	218-2	原州法泉寺智光國師碑	高	1085	鄭惟産	安民厚	安民厚	總覽	石苑	大系	集成		大東
17a	221-2	春川淸平山文殊院記	高	1130	金富轍	坦然	坦然	總覽	石苑		集成	淸玩	大東
17b	221-3	春川祭眞樂公文 (文殊院記陰記)[16]	高	1130	慧素	坦然		總覽	石苑				大東
18	220-3	寧邊妙香山普賢寺記	高	1141	金富軾	文公裕	仁宗	總覽	石苑		集成	淸玩	大東
19	221-6	淸道雲門寺圓應國師碑	高	1147	尹彦頤	坦然	坦然	總覽	石苑	大系	集成		大東
20	221-5	山淸斷俗寺大鑑國師碑	高	1172	李之茂	機俊	機俊	總附	石苑		集成	淸玩	大東
21	225-1	醴泉龍門寺記	高	1185	李知命	淵懿	淵懿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22	226-4	軍威麟角寺普覺國師碑 無[17]	高	1295	閔漬	集王		總覽			集成	淸玩	大東
23	226-3	大邱桐華寺弘眞國尊碑	高	1298	金晅	金恂	金恂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24	221-4	春川文殊寺藏經碑	高	1327	李齊賢	李君侅	李君侅	總附					大東
25	226-5	報恩法住寺慈淨國尊碑	高	1342	李叔琪	全元發	全元發	總覽	石苑	大系	集成		大東
26	222-10	開城演福寺鍾銘	高	1346	李穀	成師達		總覽	石苑				大東
27	225-2	扶餘普光禪寺重刱碑 木[18]	高	1358	危素	揚沄	周伯琦	總覽	石苑	大系	集成	淸玩	大東
28	225-4	驪州神勒寺普濟尊者 舍利石鍾記	高	1379	李穡	韓脩		總覽	石苑	大系	集成		大東
29	225-3	驪州神勒寺大藏閣記	高	1383	李崇仁	權鑄		總覽	石苑	大系	集成		大東
30	223-9	楊州檜巖寺提納薄陁尊者碑	高	1384	李穡	韓脩	韓脩	總再					大東
31	220-4a	寧邊安心寺指空懶翁碑	高	1384	李穡	權鑄		總覽					大東
32	218-4	高陽重興寺圓證國師碑	高	1385	李穡	權鑄		總覽	石苑		集成		大東
33	218-5	加平小雪庵圓證國師碑	高	#1385	權近								
34	218-3	忠州靑龍寺普覺國師碑	朝	1394	權近			總覽		大系			大東
35	226-6	楊平龍門寺正智國師碑	朝	1398	權近			總覽		大系		淸玩	大東
36	223-7	楊州檜巖寺無學大師碑	朝	1410	卞季良	孔俯		總再				淸玩	大東
37	176-7	大興大寺鍾銘 無[19]	朝	1461	韓繼禧	鄭蘭宗		總覽	石苑	大系			大東
38	224-4	寧邊普賢寺釋迦世尊 金骨舍利碑[20]	朝	1603	休靜	休靜		總覽	石苑				
39	223-5	陜川海印寺四溟大師碑	朝	1612	許筠	楊萬世	楊萬世	總覽		大系			
40	222-1	淮陽白華庵淸虛大師碑	朝	1632	李廷龜	申翊聖	申翊聖	總覽					

41	225-10	寧邊普賢寺玩虛大師石鐘銘	**朝**	1632	三一	三一	三一	總覽					
42	225-6	鐵原深源寺霽月大師碑	朝	1636	申翊聖	李珖	李珖					淸玩	大東
43	227-1	全州松廣寺開創碑	朝	1636	申翊聖	李珖	申翊聖	總覽		大系			
44	220-6	寧邊普賢寺鞭羊大師碑	朝	1645	李景奭	曺文秀	呂爾徵	總覽				淸玩	大東
45	222-2	淮陽白華庵鞭羊大師碑	朝	1645	李明漢	李珖	李珖	總覽				淸玩	
46	181-7	平壤永明寺重修碑	朝	1647	洪樂命	李徽之							
47	222-5	高城楡岾寺松月大師碑	**朝**	1647	鄭斗卿	吳竣	金光煜	總覽					
48	225-7	鐵原深源寺翠雲大師碑	朝	1652	鄭斗卿	魯翁	魯翁	總覽					大東
49a	220-5	靈巖道岬寺道詵守眉碑	朝	1653	李景奭	吳竣	金光煜	總覽		大系			
49b	217-4	靈巖道岬寺道詵國師碑陰[21]	朝	1653	鄭斗卿	金棐		總覽		大系			
50	222-4	高城楡岾寺奇巖大師碑	**朝**	1653	李敏求	吳竣	吳竣						
51	223-3	羅州雙溪寺浩然大師碑	**朝**	1656	李敏求	吳竣	金光煜						
52	225-8	安城漆長寺碧應大師碑	朝	1660	鄭斗卿	吳竣	李俁			大系			
53	222-6	淮陽白華庵虛白大師碑	朝	1662	李景奭	吳竣	李俁	總覽					
54	225-5	求禮華嚴寺碧巖大師碑	朝	1663	李景奭	吳竣	趙絅遠	總覽		大系			
55	227-4	白川江西寺事蹟碑	朝	1665	鄭之益	鄭翼周	鄭翼周						
56	222-7	淮陽表訓寺楓潭大師碑	朝	1668	李端相	李俁	李楨						大東
57	223-2	金浦文殊寺楓潭大師碑	朝	1668	趙絅	李夏鎭	李瑞雨	總覽					大東
58	222-3	高城楡岾寺春坡大師碑	朝	1671	鄭斗卿	金佐明	李俁	總覽				淸玩	
59	224-9	安邊釋王寺翠微大師碑	**朝**	1674	金錫胄	洪錫龜	呂聖齊						
60	224-8	達城龍淵寺松坡大師碑	**朝**	1676	李殷相	金宇亨	金萬重						
61	223-1	順天松廣寺普照國師碑	朝	1678	金君綏	崔致翁	李俁	總覽		大系			
62	223-4	順天松廣寺事蹟碑	朝	1678	趙宗著	李俁	李偘	總覽		大系			
63	222-8	高城楡岾寺虛谷大師碑	朝	1681	金錫胄	柳以升	趙泰期					淸玩	
64	226-7	平康寶月寺重修碑	**朝**	1681	趙宗著	李俁	李偘	總覽					
65	227-2	康津白蓮寺事蹟碑	朝	1681	趙宗著	李俁	李偘	總覽		大系			
66	223-6	寧邊普賢寺楓潭大師碑	朝	1681	趙宗著	李俁	李偘	總覽					
67	225-13	寧邊普賢寺碧虛大師碑	**朝**	1686	吳光運	李德顯	李德顯						
68	225-19	寧邊普賢寺松坡大師碑	**朝**	1686	姜尙虁	姜尙虁	姜尙虁						
69	222-11	儀旺淸溪寺事蹟碑	朝	1689	趙檉	尹昌緖	尹昌緖			大系			
70	224-5	襄陽洛山寺海水觀音空中舍利碑	朝	1693	李玄錫	李玄錫	李玄錫	總覽		大系			
71	225-11	寧邊普賢寺靈巖大師石鐘碑	**朝**	1694	尹權瑎	尹權瑎	尹權瑎	總覽					
72	222-9	淸道湧泉寺古蹟記 木[22]	朝	1702	金鎭圭								

73	224-6	梁山通度寺釋迦如來 舍利浮圖碑	朝	1706	蔡彭胤	李震休	權珪	總覽		大系			
74	225-9	寧邊普賢寺雪巖大師碑	朝	1708	道安	道安	道安						
75	219-5	安邊釋王寺事蹟碑　木[23]	朝	1709	金獻貞	李濂	李徵夏						
76	220-4b	寧邊安心寺指空懶翁碑 黃自顯模[24]	朝	1711	李穡	權鑄							
77	223-8	寧邊普賢寺淸虛大師碑 黃自顯模[25]	朝	1711	李廷龜	申翊聖	申翊聖						
78	227-5	白川護國寺事蹟碑 陰1658泰雄跋	朝	1712	安藐庵	劉德輿	李芹坡						
79	224-7	江華積石寺碑	朝	1714	李沖謙	尹淳	尹淳	總覽		大系			
80	225-16	寧邊普賢寺月渚大師碑	朝	1716	閔昌道	閔昌道	閔昌道	總覽					
81	225-17	寧邊普賢寺雲峯大師碑	朝	1716	閔昌道	閔昌道	閔昌道						
82	225-18	寧邊普賢寺雲坡大師碑(義俊)	朝	1728	金時鼎	金時鼎	金時鼎						
83	227-8	高城乾鳳寺雲坡大師碑(淸眼)	朝	1730	李宜顯	洪得福	兪拓基			大系			
84	227-7	高城乾鳳寺牧羊大師碑	朝	1731	李德壽	徐命均	李徵夏			大系			
85	224-10	德原明寂寺普運大師碑	朝	#1730	趙龜命	弘○							
86	227-10	長淵聖齋洞事蹟碑	朝	1733	金道洙	柳春元	柳春元						
87	225-14	寧邊普賢寺慈應大師碑	朝	1738	李德壽	李德壽	李德壽						
88	227-9	海南美黃寺雪峯大師碑	朝	1739	金鎭商	金鎭商	金鎭商						
89	225-15	寧邊普賢寺月峯大師碑	朝	1740	朴弼琦	朴弼琦	朴弼理						
90	225-12	寧邊普賢寺虛靜大師碑	朝	1741	李重協	楊萬元	楊萬元						
91	219-1	密陽表忠祠西山大師碑	朝	1742	李雨臣	尹得和	曹命敎			大系			
92	219-2	密陽表忠祠松雲大師碑	朝	1742	李宜顯	金鎭商	兪拓基			大系			
93	219-3	密陽表忠事蹟碑	朝	1742	李德壽	徐命均	曹命敎			大系			
94	224-11	黃州道觀寺幻夢大師碑	朝	1742	趙顯命	曹命敎	曹命敎						
95	222-12	驪州神勒寺九龍樓重修碑	朝	1751	權賁	姜柱八				大系			
96	224-13	寧邊普賢寺天然大師碑	朝	1753	金陽澤	金陽澤	金陽澤						
97	224-12	淸道雲門寺雪松大師碑	朝	1754	李天輔	李鼎輔	李益輔			大系			
98	227-6	延白護國寺寶月大師碑	朝	1755	沈師周	敎詧	敎詧						
99	224-2	安邊釋王寺記	朝	1758	英祖	英祖						淸玩	
100	227-3	高山安心寺事蹟碑	朝	1759	金錫胄	洪啓禧	洪啓禧			大系			
101	007-2	서울淨業院舊基碑	朝	1771	英祖	英祖	英祖			大系			

12) 수록 약호. 總覽-朝鮮金石總覽, 石苑-海東金石苑, 大系-韓國金石文大系, 集成-韓國金石文集成, 淸玩-金石淸玩(淸玩-4/10권본, 淸玩-4권본, 淸玩-10권본), 大東-大東金石書.

이 목록에서 『금석록』 217책(空)과 218책(谷)의 2책에 수록된 11종의 자료는 현존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중에 加平小雪庵圓證國師碑(『金石錄』 목록에는 迷原圓證國師碑)는 원증국사 태고보우의 비 4기 중에 이름만 알려진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26]

현존하는 釋寺 항목 자료 중에서 흥법사 眞空大師碑[221(虛)책, 『金石錄』에는 原州興法寺碑, 『金石集帖』 표지에는 缺], 인각사 普覺國尊碑[226(因)책, 『金石錄』에는 義興獜角寺碑, 『金石集帖』 표지에는 麟角寺大禪師碑], 興天寺鍾銘[176(忘)책, 이 책은 현존하지 않음]의 3종은 목록에는 존재하나 실물은 없는 자료이다. 진공대사비와 보각국존비가 처음 제작할 때부터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어떤 사정으로 멸실되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현존하는 자료 중에 쌍계사 眞鑑禪師碑[219(傳)책], 普光寺重創碑[225(禍)책], 湧泉寺古蹟記[222(堂)책], 釋王寺事蹟碑[224(聽)책]의 4종은 碑拓이 아닌 木板拓本이다. 이중 쌍계사 眞鑑禪師碑는 원비와 목판 탁본을 나란히 수록했다. 안심사 指空懶翁碑[220(聲)책]는 2종의 자료를 한 제목 아래 나란히 수록했다. 원비는 1384년에 건립된 것인데, 黃自顯이 모각한 비를 1711년에 새로 건립했다. 『금석집첩』은 原碑와 모각한 新碑 자료를 나란히 함께 수록했다.

---

13) 眞鑑禪師碑는 原石 拓本과 模刻木板 拓本을 모두 수록했다. 모각 탁본은 따로 구분한다.
14) 『金石錄』 목록과 京都大本 표지 목록에도 수록되었으나 실물은 누락 상태이다.
15) 현존하지는 않지만 碑陽[221(虛)책]과 별도로 다른 책[217(空)책]에 목록을 설정하여 수록하였다.
16) 碑陽과 같은 책에 나란히 수록하였지만, 별도 목록으로 구성하였다.
17) 『金石錄』 목록과 京都大本 표지 목록에도 수록되었으나 실물은 누락 상태이다.
18) 模刻木板 拓本만 수록하였다.
19) 『金石錄』 목록과 京都大本 표지 목록에도 수록되었으나 실물은 누락 상태이다.
20) 陰記도 수록되었는데, 음기는 惟政이 지어 追錄하였다.
21) 현존하지는 않지만 碑陽[220(聲)책]과 별도로 다른 책[217(空)책]에 목록을 설정하여 수록하였다.
22) 模刻木板 拓本만 수록하였다.
23) 模刻木板 拓本만 수록하였다.
24) 1384년 初立한 비석을 1711년 模刻하여 改立한 것.
25) 1632년 初立한 비석을 1711년 模刻하여 改立한 것.
26) 근래 寺址조사 과정에서 현재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小雪庵址에서 비편을 수습하였다.(강원대 중앙박물관, 『소설암지 및 화악리절터 지표조사보고서』, 강원대 중앙박물관・가평군, 2004, 35면) 이 비는 趙根이 편찬한 금석문 목록집에 '楊根迷原小雪庵普愚塔碑 權近'으로 수록되어 존재가 알려졌다.(박철상, 2014, 앞의 글, 76면)

淸虛大師碑[222(堂)책, 223(習)책]도 2종이다. 222책에 수록된 자료는 1632년에 백화암에 세운 것이며, 223책에 수록된 자료는 1711년에 황자현이 모각하여 보현사에 새로 세운 것이다. 비문 내용은 같지만, 碑額이 다르고 모각했기 때문에 글자 형태도 다소 다르다.

이 두 비문을 모각한 황자현은 이 시기 왕실 행사에 刻手로 활동한 인물이다. 1726년(영조 2) 『(英祖貞聖后復位時)冊禮都監都廳儀軌』에 각수로 등장하고, 1739년(영조 15)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에도 각수로 등장한다.[27]

『금석집첩』 수록 2책의 신라 고려 자료들이 『금석청완』이나 『대동금석서』와 같은 다른 金石集에 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수한 금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금석청완』이나 『대동금석서』에 모두 수록된 자료 중에서 『금석집첩』에 수록되지 않은 주요 비문들은 신라의 무장사 아미타여래조상비, 고선사 서당화상비, 창녕 인양사당탑기, 선림원 홍각선사비, 봉림사 진경대사비 등이고, 고려의 보리사 대경대사비, 오룡사 법경대사비, 고달사 원종대사비, 연곡사 현각선사비, 지곡사 진관선사비, 영국사 혜거국사비, 칠장사 혜소국사비, 승가굴 중수비, 반야사 원경왕사비, 영통사 대각국사비, 옥룡사 선각국사비, 영국사 원각국사비, 용수사개창비, 서봉사 현오국사비, 분황사 화쟁국사비, 보경사 원진국사비, 월남사 진각국사비, 그리고 조선시대의 원각사비 등이다. 금석학적으로 중요한 비들이 상당수 『금석집첩』에 누락되어 있다. 반면 『금석청완』에 수록된 조선시대의 비는 용문사 정지국사비(1398)에서 단광사 선화대사비(1706)에 이르는 13종, 『대동금석서』에 수록된 것은 억정사 대지국사비(1393)에서 표훈사 풍담대사비(1668)에 이르는 14종이다. 『금석록』에 69종의 조선시대 불교 관련 비를 수록하려 하였으므로, 확실히 『금석집첩』은 『금석청완』이나 『대동금석서』에 비해 조선시대 자료에 치중했던 특색을 보인다.

27) 『(英祖貞聖后復位時)冊禮都監都廳儀軌』(奎13100) 306면;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奎13506) 528면

3.『金石集帖』수록 불교자료의 구성

『금석집첩』에 수록된 불교자료의 구성은, 현존『금석집첩』보다는『金石錄』의 목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금석집첩』이 불교자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록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존 자료보다는 원래 목록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金石錄』에 따르면 釋寺 항목은 11책 101종의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京都大本은 9책 88종의 자료이다. 대부분이 금석문 자료이지만, 목판에 새긴 판본도 4종 포함되어 있다.

『금석집첩』의 釋寺 항목은 33번째 散帙 항목의 다음에 34번째에 마지막으로 편성된 항목이다. 산일된 자료 다음에 수록할 만큼 정규 내용으로 분류하지 않고 추가한 느낌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금석집첩』편찬자들의 불교자료에 대한 의식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형식적 제한 속에 유학사회에서 불교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수록하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

『金石錄』에는 朗空大師碑陰, 祭眞樂公文(文殊院記陰記), 道詵國師碑陰의 3종 자료가 독립 목록으로 선정되어 수록되었다. 그런데 碑陽과 陰記를 함께 수록한 玄化寺碑나 보현사 釋迦世尊舍利碑, 배천 護國寺事蹟碑는 비양과 음기를 함께 수록하고 1종으로 표제를 달았으므로, 이들 3종의 음기 자료 또한 비양과 합쳐 1종으로 헤아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헤아릴 때 11책에 신라 5종, 고려 28종, 조선 68종, 합 101종의 자료가 된다. 이중에서 현존하는 9책에는 신라 2종, 고려 20종, 조선 69종, 합 91종의 자료가 목록에 편집되어 있고, 다시 이중에 실제로는 3종의 자료가 누락되어 신라 2종, 고려 18종, 조선 68종, 합 88종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88종의 현존하는 불교 자료 중에서 아직 비문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신자료는 10종이다. 이들 자료는 용연사 松坡大師碑[1676년, 李殷相 撰 金宇亨 書, 224(聽)책], 보현사 碧虛大師碑[1686년, 吳光運 撰 李德顯 書, 225(禍)책], 보현사 松坡大師碑[1686년, 姜尙齊 撰 및 書, 225(禍)책], 보현사 雪巖大師碑[1708년, 月渚道安 撰 및 書, 225(禍)책], 배천 護國寺事蹟碑[1712년, 安藐庵 撰 劉德輿 書, 227(惡)책], 보현사 雲坡大師碑[1728년, 金時鼎 撰 및 書, 225(禍)책], 명적사

普運大師碑[1730년 경, 趙龜命 撰 弘모 書, 224(聽)책], 장연 聖齋洞事蹟碑[1733년, 金道洙 撰 柳春元 書, 227(惡)책], 보현사 天然大師碑[1753년, 金陽澤 撰 및 書, 224(聽)책], 호국사 寶月大師碑[1755년, 沈師周 撰 敎聳 書, 227(惡)책]이다.

이들 자료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지리적 특성이 크다. 10종 중에서 묘향산 보현사 자료가 5종이고, 이밖의 자료들도 배천 호국사, 덕원 명적사, 장연 성재동, 연백 호국사 등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달성 용연사 자료가 있을 뿐이다. 이들 자료는 9종이 북한에 소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원비의 현존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금석집첩』 수록 자료가 유일한 자료가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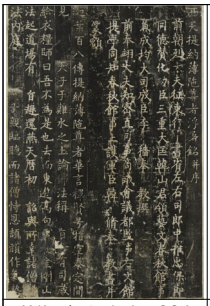
다음으로 비문의 내용은 알려졌지만 탁본이 처음으로 알려진 자료는 11종이다. 이들 자료는 영변 安心寺指空懶翁碑[1384년, 李穡 撰 權鑄 書, 1711년 黃自顯 模刻, 220(聲)책], 보현사 玩虛大師石鍾銘[1632년, 三一山人 撰 및 書, 225(禍)책], 유점사 松月大師碑[1647년, 鄭斗卿 撰 吳竣 書, 222(堂)책], 유점사 奇巖大師碑[1653년, 李敏求 撰 吳竣 書, 222(堂)책], 쌍계사 浩然大師碑[1656년, 李敏求 撰 吳竣 書, 223(習)책], 석왕사 翠微大師碑[1674년, 金錫胄 撰 洪錫龜 書, 224(聽)책], 평강 寶月寺重修碑[1681년, 趙宗著 撰 李俁 書, 226(因)책], 백화암 楓潭大師碑[1688년, 李端相 撰 李俁 書, 222(堂)책], 보현사 靈巖大師石鐘碑[1694년, 尹權瑎 撰 및 書, 225(禍)책], 보현사 慈應大師碑[1738년, 李德壽 撰 및 書, 225(禍)책], 도관사 幻夢大師碑[1742년, 趙顯命 撰 曺命敎 書, 224(聽)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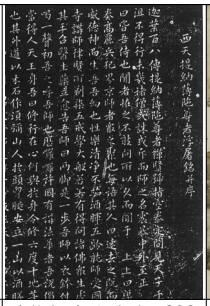
존재가 새롭게 알려진 비문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처음 알려진 비문 자료 역시 지역적 이유가 크다. 보현사 자료가 3, 유점사 2, 백화암 1, 석왕사 1, 그리고 영변과 황주 지역 자료가 1종씩이어서 이들이 10종을 차지한다. 남부 지역 자료는 나주 쌍계사 자료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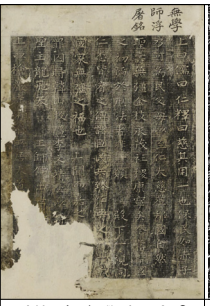
이밖에 다음 6종의 자료는 『金石淸玩』과 『大東金石書』에 비문의 일부가 알려졌지만, 그 전문은 처음 소개되는 자료이다. 회암사 提納薄陀尊者碑[1384년, 李穡 撰 韓脩 書, 223(習)책], 회암사 無學大師碑[1410년, 卞季良 撰 孔俯 書, 223(習)책], 보현사 鞭羊大師碑[1645년, 李景奭 撰 曺文秀 書, 220(聲)책], 표훈사 楓潭大師碑[1668년, 李端相 撰 李俁 書, 222(堂)책], 유점사 虛谷大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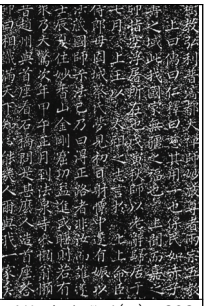
[1681년, 金錫胄 撰 柳以升 書, 222(堂)책], 안변 釋王寺記[釋王寺御製碑, 1758년, 英祖 撰 및 書, 224(聽)책]가 그들이다.[28]

이중 회암사 提納薄陀尊者碑와 無學大師碑는 불행하게도 1821년에 고의로 훼손되어 1828년에 새로 비를 건립한 사실이 있다. 이때 제납박타존자비는 훼손이 심해 李羲玄이 새로 썼고, 무학대사비는 원비의 글씨를 살릴 수 있어 孔俯 글씨 그대로 복원하여 다시 새겨 세웠다. 따라서 『금석집첩』에 수록된 이 두 탁본은 훼손되기 이전 韓脩와 孔俯가 쓴 본래 비문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提納薄陀尊者碑는 이전에도 『諸金石之文』에 檜巖寺指空禪師浮屠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었고, 朗善君이 石刻으로 편찬한 『東國名筆帖』에도 檜巖寺指空禪師浮屠碑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다고 한다.[29] 또 提納薄陀尊者碑는 『大東金石書』에, 無學大師碑는 『金石淸玩』에 수록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일부분만을 수록한 것들이다. 이들 원비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비문 전체를 수록한 『금석집첩』의 자료는 全面 자료로서는 유일한 자료가 된다.


韓脩 書 指空碑 1384
金石集帖


李羲玄 書 指空碑 1828
韓國金石文大系


孔俯 書 無學碑 1410
金石集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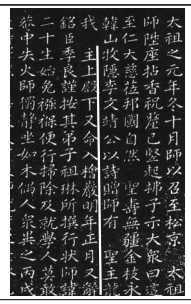

孔俯 書 無學碑(再) 1828
韓國金石文大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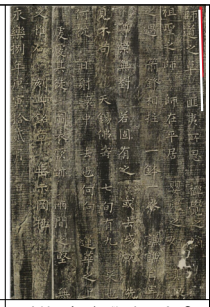
이는 『금석집첩』 수록 자료를 1828년에 再刻한 현존 비와 대조해 보면 그 의의를 잘 알 수 있다. 무학대사비는 1828년에 다시 세울 때 1410년 처음 세울 때 孔俯가 쓴 글씨 그대로 복원하여 다시 새겨 세웠다고 했지만, 두 자

28) 이 5종의 자료는 회암사제납박타존자비만 『大東金石書』에 수록되었고, 나머지 4종은 『金石淸玩』에 수록되었다.
29) 박철상, 2014 앞의 글, 49면 및 64면.

료를 대조해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정하고 획이 모난 1410년 새김에 비해, 1828년의 다시 새김은 획이 원만하고 글씨의 오른편이 약간 들린 특징을 보여 서로 다르다. 또 銘의 첫 구절을 원본은 '師道之卓'이지만 재각본은 '師之道卓'으로 다르게 새긴 부분도 있으며, 이 명을 새기는데 구절 사이를 한 칸 띄운 원본과 달리 재각본은 空隔 없이 이어 새긴 점도 다르다.


孔俯 書 無學碑 1410
金石集帖


孔俯 書 無學碑(再) 1828
韓國金石文大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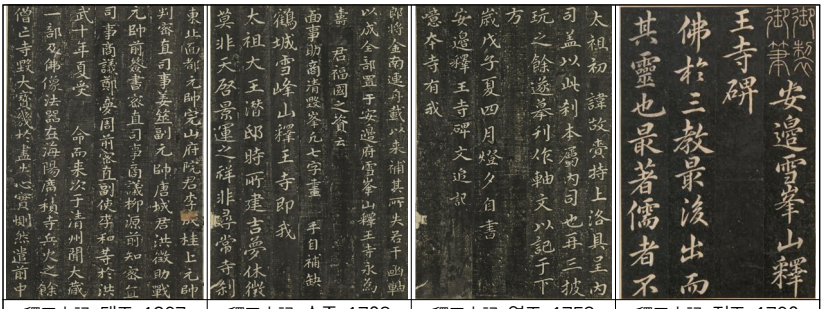

孔俯 書 無學碑 1410
金石集帖


孔俯 書 無學碑(再) 1828
韓國金石文大系

釋王寺記는 『金石錄』에는 '釋王寺御製藏經碑'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였고, 『금석집첩』 표지에는 '釋王寺藏經御製碑'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였다. 그러나 이 비는 藏經 사실보다는 태조와 무학대사와의 인연을 중점적으로 기술한 석왕사 사실비이다. 1377년(우왕 3)에 동북면도원수 李成桂는 姜筮 鄭夢周 등과 함께 병화로 망실된 廣積寺의 대장경을 보완하여 전부를 완성하고, 이 대장경을 佛像 法器와 함께 석왕사에 옮겨 봉안하여 왕과 국가의 안녕을 빌었다. 본래 태조가 이에 대한 사실을 기술하여 1397년(태조 6)에 御書 비를 세웠는데, 숙종은 당시 비가 마모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자 1708년(숙종 34)에 이를 새로 세웠다. 앞부분에 태조 글씨로 전해온 158자를 새기고, 이어 숙종 자신이 그 유래를 서술하고 직접 써서 세웠다.[30] 그런데 1758년(영조 34)에 영조는 다시 태조와 숙종의 글씨를 앞에 새기고,

30) 숙종비는 그 내용이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되었다; 조선총독부, 「釋王寺事蹟碑」, 『朝鮮金石總覽』 卷下, 153-154면.

이들 부분에 이어 '安邊釋王寺碑文追記'라는 제목으로 그 유래를 상세하게 직접 짓고 써서 새겼다. 이 자료가 『금석집첩』에 수록되었다. 이후 정조는 혜경궁이 석왕사에 시주하여 1790년(정조 14)에 원자가 탄생한 것을 기리는 비를 세우며, 이 절이 태조의 꿈을 무학대사가 해석하여 王基를 연 유래가 서린 곳이자 태조-숙종-영조로 이어지는 어필이 내려온 곳임을 확인하였다.[31] 태조-숙종-영조로 이어지며 기문을 짓고 쓴 데 더하여 정조가 신앙 사례를 확인한 특이한 자료이다.



釋王寺記 태조 1397 金石集帖	釋王寺記 숙종 1708 金石集帖	釋王寺記 영조 1758 金石集帖	釋王寺記 정조 1790 藏書閣

보현사 鞭羊大師碑와 유점사 虛谷大師碑는 撰者나 書者의 의의 때문에 『금석집첩』과 『금석청완』에 수록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동일한 유점사에 있지만 기암대사 등 다른 자료는 『금석청완』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 두 자료만 수록된 사정은 『금석청완』이나 『금석집첩』의 제작자의 제작 의도와 인적 관계 등에 영향받았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金石集帖』 수록 불교자료의 특징

趙涑이 시작하여 1680년대에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金石淸玩』에는 350종이 넘는 금석문 자료가 수록되었다.[32] 이중에 불교자료는 모두 59종이다.

31) 장서각 소장 「安邊雪峯山釋王寺碑」(소장번호 K2-3958 御製御筆安邊雪峯山釋王寺碑)
32) 남동신, 2012, 앞의 글, 400면; 이 글은 4권본은 50명의 60종, 10권본은 145명의 353종 금석문을 수록하였다고 하였다.(391면 및 398면)

『金石淸玩』 4권본에는 25종의 자료가, 10권본에는 46종의 자료가 수록되었는데, 이중 중복 수록된 자료가 12종이다. 이로써 두 『金石淸玩』에 비문 내용이 수록된 불교자료는 59종이다.[33] 이밖에 10권본에는 불교자료 碑額 30종이 수록되었는데, 신라 2종, 고려 25종, 조선 3종이다. 4권본 25종의 자료는 신라 5종, 고려 19종, 조선 1종이다. 10권본 46종의 자료는 신라 7종, 고려 27종, 조선 12종인데, 이중 신라 3종과 고려 9종이 4권본과 중복된다. 이에 따라 59종의 자료는 신라 9종, 고려 37종, 조선 13종이 된다.

朗原君이 주도하고 朗善君이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大東金石書』 7첩(본집 5첩, 속집 2첩)에는 신라 19종, 고려 90종, 조선 192종, 총 301종의 자료를 수록하였다.[34] 이중에 불교 자료는 1첩에 신라 10종, 고려 26종, 모두 36종을 수록하였고, 2첩에는 고려 32종, 조선 4종 등 모두 36종을 수록하였다. 4첩에는 조선 3종, 5첩에는 조선 6종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續集인 6첩에는 신라 4종, 고려 18종, 조선 1종을 수록하였는데, 이중 신라 3종과 고려 7종, 조선 1종은 原集과 중복된 자료이므로 새 자료는 신라 1종, 고려 11종이다. 7집에는 조선 2종을 수록하였다. 이로써 『대동금석서』에 수록된 불교자료는 신라 11종, 고려 69종, 조선 15종, 총 95종이다. 『대동금석서』 수록 불교자료는 『금석청완』에 비해 특히 고려시대 자료가 2배 정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1832년에 청 劉喜海가 편집 간행하고 1922년에 劉承澣이 보유하여 펴낸 『海東金石苑』은 총 158종의 수록 자료 중 76종이 불교자료이다. 신라 12종, 고려 62종, 조선 2종, 모두 76종의 불교자료를 수록하였다.

이에 비해 『金石集帖』은 목록 『金石錄』에 불교자료로 신라 5종, 고려 27종, 조선 69종, 총 101종의 자료를 수록하였고, 京都大 소장으로 현존하는 자료는 신라 2종, 고려 18종, 조선 68종, 총 88종의 불교자료가 남아 전한다.

---

33) 남동신, 앞의 글, 2012, 391-393면 및 405-416면 표를 기준으로 함.

34) 남동신 외, 『대동금석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2, 8-21면 목록; 이 책에서는 1693-1699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280여 종 400여 건을 수록했다고 하였다.(23면) 朴徹庠은 삼국 19, 고려 90, 조선 192, 총 301종의 자료를 수록했다고 하였다. 박철상, 「朝鮮時代 金石文 자료의 정리에 대하여」, 『大東文化硏究』 10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85면.

[표 3] 금석문 자료집 수록 불교자료 비교

		총자료	불교자료	비율(%)	신라	고려	조선
금석청완	(1680년대)	391	59	14.8	9	37	13
대동금석서	(1690년대)	301	95	31.6	11	69	15
금석집첩	(1710년대)	2265	101	0.6	5	27	69
금석집첩 현존		1825	**88**		**2**	**18**	**68**
해동금석원	(1912년)	158	76	48.1	12	62	2
조선금석총람	(1919년)	654	231	35.3	32	105	94

『금석집첩』 수록 불교자료가 고려 이전 자료가 적은 것은 『금석집첩』이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자료를 중점적으로 탁본 수집한 결과이다. 『금석청완』이나 『대동금석서』와 비교해 볼 때 그 비중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금석문 자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문 자료인 神道碑 형식의 비문은, 고려말부터 건립되기 시작했으므로 고려 이전 일반 비문은 거의 없다. 고려 이전 비문의 대부분은 고승들의 비문이다. 일반 비문도 그렇지만, 고승들의 비문은 국가적 인정을 받고 그 지원 하에 당대 최고의 명문장과 명필이 참여하여 조성한 사업이었으므로 일찍부터 그 중요성이 평가되고 많은 탁본도 만들어졌다.

이런 자료적 성격을 숙지하였을 『금석집첩』 편찬자들이 고려시대까지의 불교 자료를 소수만 수록한 것이 『금석집첩』의 특징이다. 이는 『금석청완』이나 『대동금석서』 등 다른 금석자료 편찬서와 비교해도 두드러져 보이는 특징이다. 반면에 조선시대 불교 자료의 경우는 『금석집첩』 수록 자료가 월등하게 많다. 이는 『금석집첩』 편찬자들이 불교 자료를 의도적으로 적게 수집한 것은 아님을 말해 준다. 편찬 과정에서 이미 작업이 이루어진 『금석청완』이나 『대동금석서』를 익히 알고 이를 의식하며 작업했을 『금석집첩』 편찬자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굳이 추정해 보자면, 『금석집첩』 에는 조선시대 자료 중에 지역적 특징을 보이는 자료들, 곧 묘향산이나 금강산 소재 자료들이 집중 수록된 점을 고려하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집한 결과 이와 같은 구성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 자료의

경우 묘향산이나 금강산 못지 않게 대흥사 등 남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불교 자료도 많은데, 이들은 『금석집첩』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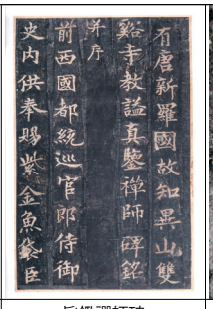
자료의 수록 비율로 보면 『금석집첩』의 불교 자료가 유난히 적다. 이 또한 고려 이전의 자료가 적고 조선시대 자료에 치중한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수록 자료의 수는 좀 다르다. 『금석청완』 특히 『대동금석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이지만, 근대에 이루어진 『조선금석총람』이 비문 외에 작은 금석문도 모두 모은 것에 비해 보면, 『금석집첩』이 조선시대 불교 비문 자료를 많이 수집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자료 중에는 내용이나 탁본 자료로서 처음 알려지는 것이 다수 있는 것이다.

『금석집첩』 수록 자료의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 신라 고려 조선 시대별로 대표적인 자료를 다른 탁본첩과 비교해 보자.

신라시대 자료로는 쌍계사 眞鑑禪師碑를 들 수 있다. 신라말의 대문호 崔致遠이 짓고 쓴 비로서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전하는 탁본도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진감선사비는 木板으로 새겨 유통되어, 전하는 목판 인본도 여러 본이다. 『금석집첩』에는 원탁과 함께 목판본도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또 다행히 이 비는 다소 마모되기는 했지만 현존하기 때문에 원형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眞鑑禪師碑
金石集帖


釋王寺記 숙종 1708
金石集帖


眞鑑禪師碑
書藝博


眞鑑禪師碑(全拓)
國博

『금석집첩』의 진감선사비는 탁본 중에서는 원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에

속한다. 모두 27面에 1면당 8행, 1행 12자 정도의 비문 자료를 수록하였다. 장서각 소장 탁본첩은 34.8×23cm의 비첩에 30면으로 구성했는데, 1면 8행, 1행 10자의 비문 자료를 수록하였다. 장서각본도 탁본이 양호한 편이나 판면이 고르지 않아 『금석집첩』의 것이 더 우수하다. 또한 장서각본은 손상된 부분은 삭제하고, 공격도 비워 놓지 않고 남은 글씨 부분만 엮어 비첩을 만들었다. 따라서 남은 글씨는 우수한 탁본 자료로 보이지만, 비의 원모습을 되살려 보는 데는 『금석집첩』 자료가 월등 우수하다. 서예박물관에서 간행한 탁본은 글씨를 살리기 위해 가묵이 많아 역시 원형을 살피는 데는 『금석집첩』만 못하다. 물론 원비가 남아 있어 원형을 확인할 수 있지만, 틱본 전승 자료로서 『금석집첩』 수록 자료가 우수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금석집첩』 수록 자료가 원형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다. 원비 및 全拓本과 비교해 보면, 空隔 처리에 임의적인 편집을 볼 수 있다. 먼저 撰書者인 崔致遠을 기록한 줄은, 원본은 12자 내려 써서 행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했는데, 『금석집첩』은 3행에 걸쳐 수록하면서 모두 한 줄 내려 편집했다. 장서각이나 서예박본이 모두 제목과 본문과 마찬가지로 첫칸부터 편집한 것과는 다르다. 그중 '奉 敎'의 공격은 원본은 3자이지만 『금석집첩』은 1자만 띄워 변형했다.

본문의 편집은 매우 우수하다. 일부 마모된 글자의 경우에도 『금석집첩』은 다른 본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대부분 해당 글자를 써넣어 전체적인 구성을 중시했다. 그런데 공격의 경우 다소 다른 편집 형태를 보인다. 원비는 聖祖 閔哀王 憲康王 부분에서 행을 바꾸어 배치했고, 대부분 왕과 관련된 구절은 3칸의 공격을 두었다. 그러나 26행과 27행의 '每有 王人乘馹傳命', '凡居王土而戴佛日者', '亦何必遠汚 綸言' 구절은 2칸을 비웠다. 『금석집첩』은 자연스럽게 행이 시작되어 공격이 없는 16행의 '興德大王飛鳳筆迎勞' 부분에서 '興德大王' 앞에 1자를 비웠다. 원비에서 행을 바꾼 19행 '閔哀大王'은 2자 비웠는데, 같은 행의 '使復于 王聞之愧悟' 부분은 '王' 앞에 원비와 마찬가지로 3자를 비웠다. 3자 남기고 행을 바꾼 20행 '避 聖祖廟諱' 부분에서 『금석집첩』은 1자 비웠다. 26행의 '每有 王人乘馹傳命'은 원비는 2자 비웠는데 『금석집첩』은 1자

비웠고, 27행의 '居 王土而戴佛日者', '爲 君貯福', '亦何必遠汚 綸言'은 원비와 마찬가지로 각각 2자, 3자, 2자 비웠다. 행을 바꾼 30행 '當 文聖大王之朝'는 『금석집첩』은 2자 비웠고, 바로 이어진 '上惻 僊襟'은 원비는 3자, 『금석집첩』은 1자 비웠으며, 역시 행을 바꾼 31행 '獻康大王'은 『금석집첩』은 앞에 3자를 비웠다. 32행 '龜未戴石 龍遽昇天'은 원비와 『금석집첩』 모두 2자 비웠다. 36행 銘文은 원비는 행을 바꾸었고 『금석집첩』은 2자 비워 연결하였다.

현재 원비는 31행부터 상부 일부가 손상되어 40여 자가 떨어져 나갔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자료는 이렇게 손상되기 전의 탁본으로서, 그 부분을 거의 확인할 수 있다. 내용 구성은 목판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원비 글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석집첩』 수록 자료의 의의가 크다.

이처럼 『금석집첩』 수록 진감선사비는 편집상 공격 배치 등 자의적인 구성도 다소 존재하지만, 원형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크다. 진감선사비의 이와 같은 편집 원칙은 대체로 전체 편집에서도 관철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금석집첩』을 편집 제작한 이들이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 자료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수록 제작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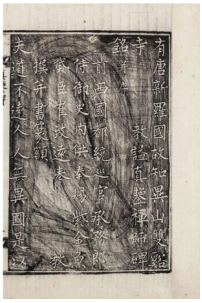
진감선사비의 목판본은 『금석집첩』 수록 자료와 장서각과 규장각 소장본이 같은 형태로서, 인쇄 상태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다.



眞鑑禪師碑木板
金石集帖



眞鑑禪師碑木板
藏書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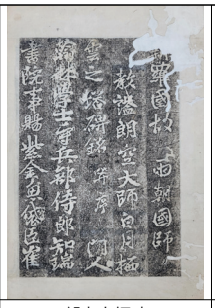
眞鑑禪師碑木板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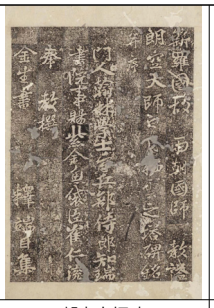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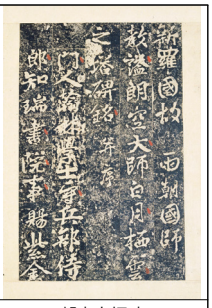
眞鑑禪師碑全拓
國博

고려시대 자료로는 태자사 朗空大師碑가 대표적이다. 신라 명필 金生의 글씨를 集字하여 세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탁본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현전하는 탁본 자료도 많다. 태자사에 있기 때문에 太子寺碑, 낭공대사의 탑명이 백월서운탑이기 때문에 白月碑 또는 白月栖雲碑, 석남사에서 입적하여 음기 제목이 石南山故國師碑銘後記이기 때문에 石南山國師碑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원비 碑身이 남아 있어 비교 대조가 가능하다.


朗空大師碑
金石集帖


朗空大師碑
藏書閣


朗空大師碑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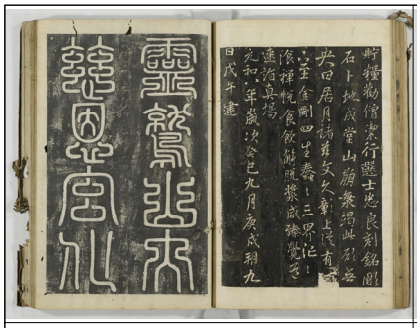

朗空大師碑
國博

낭공대사비 자료를 장서각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해보면, 보존 상태나 장첩 크기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탁본 자료의 면모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금석집첩』은 모두 26면에 걸쳐 낭공대사비를 수록하였으며, 1면 7행, 1행 14자 정도의 비문을 수록하였다. 비가 손상이 많아 마모된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대체로 정돈된 비면을 가진 양질의 탁본을 수록하였다. 장서각에는 모두 4종의 낭공대사비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49면으로 장첩한 비첩이 탁본 내용도 우수하고 전비를 수록하고 있다.[35] 세로 30.8cm 크기의 이 비첩은 1면 5행, 1행 10자 정도의 비문을 수록하였다. 탁본은 대체로 우수한 편이지만, 『금석집첩』에 비해 정밀성이 떨어진다. 다른 탁본 자료와 달리 찬서자를 행을 바꾸지 않고 이어 붙인 것도 다르다. 규장각본은 30면으로 구성된 비첩이다.[36]

35) 장서각 소장 朗空大師碑(소장번호 K2-3933 白月碑).
36) 규장각 소장 朗空大師碑(소장번호 古 4010-1 朗空大師白月栖雲之塔碑銘).

36.4×26.3cm 크기의 이 비첩은 1면 7행, 1행 12자 정도의 비문을 수록하였다. 탁본은 비교적 우수한 편이지만, 탁본면에 蟲蝕 자국이 많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44.2×27cm 크기의 비첩에 1면 5행, 1행 10자 정도의 비문을 수록한 것으로 장서각 소장본과 거의 유사하나 탁본 상태는 더 우수하다.[37] 글자 군데군데 방점을 찍어 소장과 보존에 공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여러 자료와 대조해 볼 때, 그중에서 『금석집첩』 수록본이 탁본 상태나 보존이 모두 양호한 자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고려의 또 다른 자료로 玄化寺碑가 있다. 고려 왕실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었던 현화사 창건 사실과 내력을 기록한 이 비는 특히 음기도 잘 남아 있어 碑陽 碑陰 자료가 모두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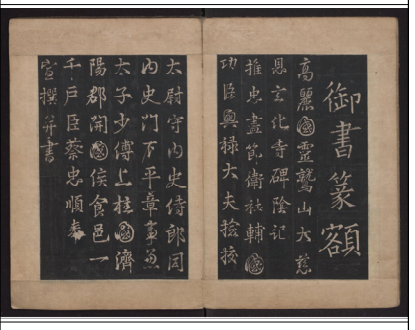
玄化寺碑
金石集帖



玄化寺碑
金石集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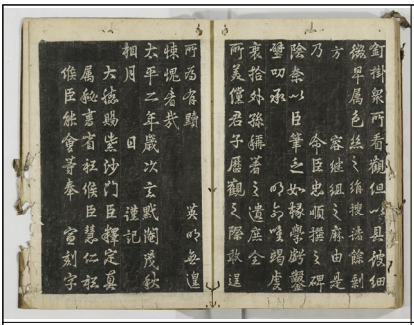


玄化寺碑陰記
金石集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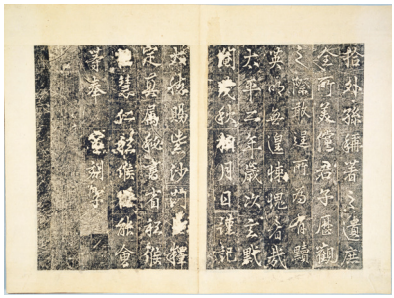


玄化寺碑陰記
藏書閣

3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朗空大師碑(소장번호 본관 2394 太子寺朗空大師塔碑拓本).



玄化寺碑陰記
金石集帖



玄化寺碑陰記
國博

『금석집첩』에는 비양 비음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篆額까지 완전하게 수록하였고, 탁본 상태도 아주 우수하다. 비양은 28면으로 1면 8행, 1행 12자 정도를 수록하였고, 비음은 31면으로 1면 8행, 1행 11자 정도를 수록하였다. 장서각 소장본은 음기만 수록한 비첩인데, 33.6×21.4cm 크기의 비첩 53면에 1면 6행, 1행 8자의 비문 음기 전체를 수록하였다.[38] 첫머리에 '御書篆額'이라는 비양 첫머리의 글씨를 싣고 음기를 실은 독특한 구성인데, 가묵하여 비면을 정돈하였기 때문에 상태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도 음기만 수록한 것인데, 면의 구성이 장서각본과 같이 1면 6행, 1행 8자이다.[39] 탁본 상태가 다른 본에 비해 정밀하지 않고, 여러 글자의 박락이 보인다. 이는 『금석집첩』이나 장서각본보다 후대에 비가 더 손상된 상태에서 탁본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금석집첩』과 장서각본은 가묵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인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화사비는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양 비음 모두 全拓本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비첩으로 작성한 『금석집첩』 수록본과 대조하여, 『금석집첩』을 제작할 때 원형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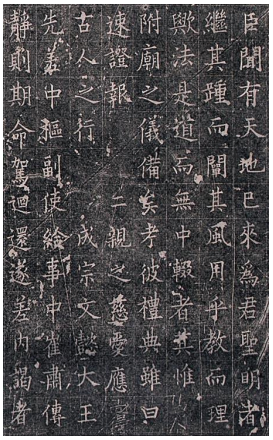
『금석집첩』 수록 현화사비는 원비의 空隔을 그대로 살려 원형에 충실하게

38) 장서각 소장 玄化寺碑(소장번호 B 14B 36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
3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玄化寺碑(소장번호 본관 2398 玄化寺碑拓本).

비첩을 작성했음을 확인해 준다. 다만 가묵했기 때문에 원비의 격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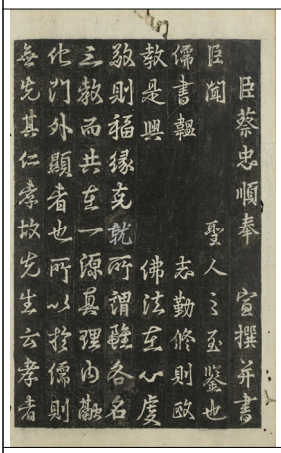
玄化寺碑
金石集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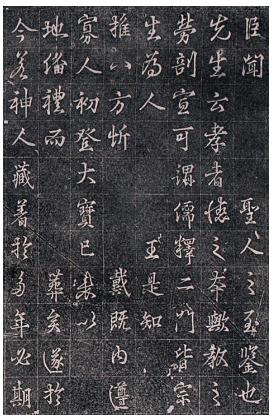
玄化寺碑(全拓 部分)
國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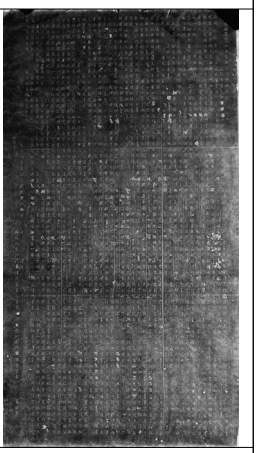
玄化寺碑全拓
國博



玄化寺碑陰記
金石集帖



玄化寺碑陰記(全拓 部分)
國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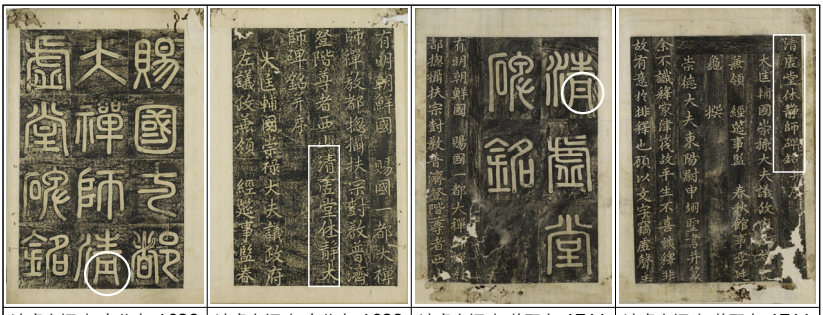
玄化寺碑陰記全拓
國博

『금석집첩』은 전액에 이어 撰書者를 원비에서 8칸 내려 구성한 것을 탁본

첩에서는 한칸 내려 배치했다. 찬자와 서자 모두 원비는 '奉 宣'에서 3자 비웠는데, 『금석집첩』은 찬자 周佇는 3칸, 서자 蔡忠順은 2칸 비웠다. 이는 둘을 차등 지은 것이 아니라, 서자 부분이 3칸을 비우면 1행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편집 의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문 내용의 공격은 원비는 항상 2칸 비웠으나 『금석집첩』은 대체로 2칸을 비우되 때에 따라 1칸을 비우기도 하였다. 원비 4행의 '後或 中夏主洎'이 그런 경우인데, 이 역시 '或' 다음에 한 칸을 비우고 행이 바뀌어 편집상 유연한 구성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비 8행의 '併集于身 眞王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이 바뀌기 때문에 편집상 1자 비워 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비 18행의 '陵號曰 元陵'은 원비와 마찬가지로 1자 비워 구성하였다. 원비 19행의 '謚曰 皇考爲安宗'는 2자, 다음의 '皇妣' '聖上' '妣陵'은 모두 3자 비웠는데, 『금석집첩』의 구성도 원비와 같다. 이후에도 행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변화 외에는 원비의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비첩을 구성하였다. 이런 『금석집첩』의 편집 형태는 원비의 재현에 충실하고자 했던 제작자들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비양의 글씨를 쓴 蔡忠順이 짓고 쓴 비음의 편집 구성도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 자료는 淸虛大師碑가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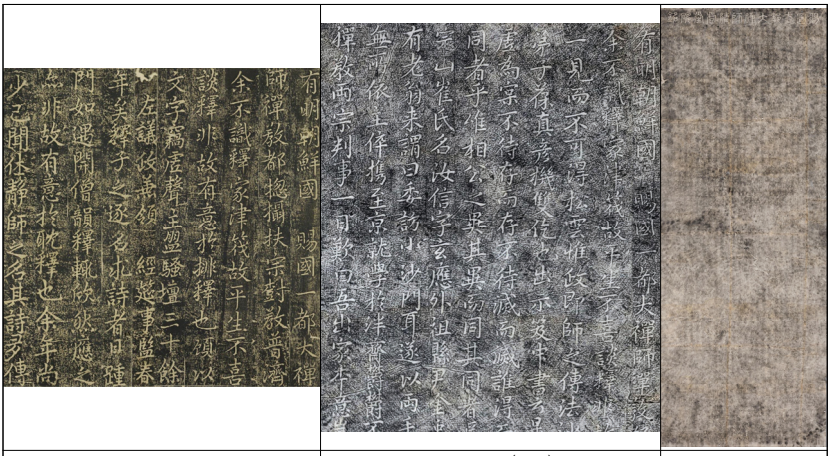


淸虛大師碑 白華庵 1632 金石集帖 | 淸虛大師碑 白華庵 1632 金石集帖 | 淸虛大師碑 普賢寺 1711 金石集帖 | 淸虛大師碑 普賢寺 1711 金石集帖

청허대사비는 1632년에 금강산 표훈사 白華庵에 처음 건립한 이래 여러 곳에 세워졌다. 백화암비는 李廷龜가 짓고 申翊聖이 써서 건립하였는데,

1711년에 이 비문은 묘향산 普賢寺에 다시 건립되었다. 이때 篆額이 '賜國一都大禪師淸虛堂碑銘'에서 '淸虛堂碑銘'으로 축소되고, 碑題도 '有明朝鮮國賜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西山淸虛堂休靜大師碑銘幷序'에서 '淸虛堂休靜師碑銘幷序'로 축소되었다.

1647년에는 張維가 짓고 尹仁美가 쓴 비가 해남 大興寺에 건립되었다. 1742년에는 밀양 表忠寺에 李雨臣이 짓고 尹得和가 쓴 비가 세워졌다. 이처럼 휴정의 비는 그를 현창하는 후학들의 지향에 따라 시기를 달리 하며 여러 비가 세워졌다.



淸虛大師碑
金石集帖

淸虛大師碑(全拓)
藏書閣

淸虛大師碑全拓
藏書閣

『금석집첩』에는 3종의 청허대사비가 수록되었다. 219(傳)책에는 '西山大師碑'(『金石錄』 西山大師休靜碑)라는 이름으로 표충사비가, 222(堂)책에는 '淸虛堂休靜大師碑'(『金石錄』 同)라는 이름으로 백화암비가, 223(習)책에는 '妙香山淸虛堂休靜師碑'(『金石錄』 同)라는 이름으로 보현사비가 수록되었다. 백화암비는 1604년에 휴정이 입적한 후 가장 먼저 1632년에 건립한 비이다. 그런데 '西山大師'라는 이름으로 흔히 불린 휴정의 정신이 가장 뚜렷하게 전해지는 보현사에도 그의 비를 세우고자 하여, 1711년에 백화암비를 그대로 보현사에 다시 세웠다. 그 사이 남방 대흥사에는 1647년에 張維가 새로 지은 휴정의 비를

세우고 휴정의 유품을 전승하며 종통을 계승했음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40] 이에 휴정의 본 터전이라 할 수 있는 보현사에서도 휴정의 비를 세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훗날 정조 때 대흥사에서 1791년에 表忠祠를 건립하여 서산의 종통을 공식 인정받자, 보현사에서도 1796년에 酬忠祠를 건립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711년에 건립한 보현사비는 백화암비를 토대로 이를 黃自顯이 模刻하여 세운 것이다. 황자현은 당시 궁중 행사에 참여하던 刻手로서 이 일도 맡았는데, 같은 해에 보현사와 같은 지역인 영변 安心寺에도 指空懶翁碑를 역시 모각하여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41]

백화암비와 보현사비는 동일한 비를 再刻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된다. 동일한 비첩이므로 크기 등 상호 비교가 용이하다. 먼저 전액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모각비는 원비의 전액 가운데 끝 5자만 가져왔는데, 구체적인 결구에 차이가 있다. 비제 또한 긴 명칭을 간략하게 줄였다. 뿐만 아니라 모각이라 하나 실제로 모각자의 필치가 크게 반영되어, 원비와 모각비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1632년의 백화암비와 1711년의 보현사비는 같은 글씨 대본을 다시 새길 때 원 글씨와는 사뭇 다른 경향을 보여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다행히 백화암비는 장서각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全拓本이 현존하여 또다른 비교가 가능하다.[42] 『금석집첩』 소장 백화암비는 碑陽만을 수록하였는데, 30면에 걸쳐 1면 6행, 1행 12자를 수록했다. 전액에 이어 撰書者를 원비에서 30칸 이상 내려 중하부에 구성한 것을 『금석집첩』에서는 한 칸 내려 배치했다. 장서각 전탁본은 268×99cm 크기로서 碑陽과 碑陰 모두 소장되어 있다.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금석집첩』의 자료가 원비 탁본을 충실하게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碑題의 '朝鮮國 賜國一'과 본문에서 '宣廟' 3군데와 '大駕' 등 모두 다섯 곳에서 1칸 공격을 두었는데, 『금석집첩』 수록본도

40)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135-137면.
41) 주 27) 참조
42) 장서각 소장 淸虛大師碑(소장번호 4038 白華庵西山大師碑).

모두 같이 비워 구성하였다. 탁본 상태 또한 『금석집첩』 자료가 우수하다.



淸虛大師碑 白華庵 1632



淸虛大師碑 普賢寺 1711



淸虛大師碑 普賢寺 1711

백화암비의 실물은 일제강점기 사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현사비도 같은 시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래에 소개된 사진은 그 사이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비신은 중하부가 비면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 그대로인데, 비신을 보호하도록 세운 화강암 대석이 사라지고 반룡형 이수가 개석형으로 바뀌어 중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43]

5. 맺음말

『金石集帖』은 현재 전하는 한국 금석문 자료를 집성한 성과 중에서 碑全面의 면모를 수록한 가장 이른 자료집이다. 서체를 강조하여 비면 일부를 수록한 『金石淸玩』과 『大東金石書』에 비해 비 전면을 수록한 『금석집첩』은

43)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한의 전통사찰 2(평안북도)』, 양사재, 2011, 132면 보현사 서산대사비.

서예적 특성은 물론 비문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적 의의도 매우 크다.

『금석집첩』은 모두 226책으로 편찬하였는데, 이는 그 편찬을 위한 목록인 『金石錄』과 대응하여 그 전모를 알 수 있다. 京都大學에 현존하는 『금석집첩』은 222책인데, 이중 3책이 복본이어서 219책이 고찰 대상이 된다.

『금석집첩』에는 34종의 분류 항목 중에서 마지막에 釋寺라는 항목으로 불교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다. 목록인 『금석록』에는 모두 101종의 불교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는데, 그중에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은 88종의 자료이다. 이 숫자는 釋寺 항목 외에 불교자료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 3종을 포함한 것이다. 그 3종은 御迹 항목에 수록된 淨業院舊基碑[『금석록』 7(洪)책], 凡非墓碑 항목에 수록된 興天寺鍾銘[『금석록』 176(忘)책], 凡非墓碑 항목에 수록된 永明寺重修碑[『금석록』 181(靡)책]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목록 『금석록』에 수록된 불교자료는 신라 5종, 고려 27종, 조선 69종, 총 101종이며, 京都大學 소장 『금석집첩』에 현존하는 불교자료는 신라 2종, 고려 18종, 조선 68종, 총 88종이다.

釋寺 항목 자료 중에서 흥법사 眞空大師碑[221책(虛), 『금석록』에는 原州興法寺碑, 金石集帖 표지에는 缺], 인각사 普覺國尊碑[226책(因), 『금석록』에는 義興麟角寺碑, 金石集帖 표지에는 麟角寺大禪師碑], 興天寺鍾銘[174책(忘), 이 책은 현존하지 않음]의 3종은 목록에는 존재하나 실물은 없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가 처음 제작할 때부터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어떤 사정으로 멸실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또 쌍계사 眞鑑禪師碑[219(傳)책], 普光寺重創碑[225(禍)책], 湧泉寺古蹟記[222(堂)책], 釋王寺事蹟碑[224(聽)책]의 4종은 碑拓이 아닌 木板 拓本이다. 쌍계사 眞鑑禪師碑는 원비와 목판 탁본을 나란히 수록했다. 안심사 指空懶翁碑[220(聲)책]는 1384년에 건립한 원비와 1711년에 黃自顯이 모각하여 새로 건립한 2종을 한 제목 아래 나란히 수록했다. 淸虛大師碑[222(堂)책, 223(習)책]도 2종인데, 1632년 비는 백화암에 세운 원비이며, 223(習)책에 수록된 자료는 1711년에 황자현이 모각하여 보현사에 세운 것이다. 비문 내용은 같지만, 碑額이 다르고 모각했기 때문에 글자 형태도 다소 달라 비문 제작의 내력을 입증해주는 자료이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신라 고려의 불교자료들은 『금석청완』이나 『대동금석서』와 같은 다른 금석집에 비해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또한 금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금석청완』에는 신라 9종, 고려 37종, 조선 13종, 모두 59종의 불교자료를 수록하였고, 『대동금석서』에는 신라 11종, 고려 69종, 조선 15종, 총 95종의 불교 자료를 수록하였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이전 자료가 적은 것은 『금석집첩』이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자료를 중점적으로 탁본 수집한 결과이다. 조선시대 불교 자료의 경우는 『금석집첩』 수록 자료가 월등하게 많다.

『금석집첩』 수록 자료 중에서 아직 비문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신자료는 용연사 松坡大師碑[1676년, 李殷相 撰 金宇亨 書, 224(聽)책]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僧碑와 事蹟碑 10종이 있다. 비문의 내용은 알려졌지만 탁본이 처음으로 알려진 자료는 보현사 玩虛大師石鍾銘[1632년, 三一山人 撰 및 書, 225(禍)책] 등 조선시대 승비와 사적비 11종이 있다. 이들 자료가 그동안 다른 금석 자료 편찬에 누락된 이유는 지리적 특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묘향산 보현사 자료를 비롯하여 주로 북한지역의 한적한 지방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회암사 提納薄陀尊者碑와 無學大師碑는 『금석집첩』 편찬 후 훼손되어 새로 건립했으므로, 『금석집첩』 수록 자료는 훼손되기 이전 韓脩와 孔俯가 쓴 본래 비문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신라의 쌍계사 眞鑑禪師碑, 고려의 태자사 朗空大師碑와 玄化寺碑, 조선의 淸虛大師碑를 다른 탁본 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금석집첩』 수록 자료는 편집상 空隔 배치 등 자의적인 구성도 다소 존재하지만, 대체로 원형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금석집첩』을 편집 제작한 이들이 자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원자료를 최대한 원형으로 수록 제작하려 했음을 말해 준다.

『금석집첩』 수록 불교 자료는 새로운 내용과 탁본을 전해주는 자료가 20여 종이나 되어 그 자료 제공의 역사적 의의가 크고, 특히 원형에 가깝게 편집함으로써 비의 원모습을 충실히 보여주는 양질의 탁본 자료라는 점에서도 그 제작과 보존의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金石淸玩』(4권본, 10권본).
『大東金石書』 1976,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조선총독부, 『朝鮮金石總覽』 上下, 1919.
『海東金石苑』 上下, 1976,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李蘭暎, 『韓國金石文追補』, 1976, 아세아문화사.
任世權 외, 『韓國金石文集成』 35책, 2002-2014, 韓國國學振興院·靑溟文化財團.
趙東元, 『韓國金石文大系』 7책, 1979-1993, 원광대 출판부.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3책, 1984, 아세아문화사.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1976, 일지사.

강원대 중앙박물관, 『소설암지 및 화악리절터 지표조사보고서』, 강원대 중앙박물관·가평군, 2004.
金相永 외, 「朝鮮時代 佛敎金石文 調査硏究(1)」, 『중앙승가대학교교수논문집』 10, 중앙승가대, 2003.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남동신 외, 『대동금석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남동신, 「『金石淸玩』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한의 전통사찰 2(평안북도)』, 양사재, 2011.
박진완, 「京都大學부속도서관소장 金石集帖 자료현황」, 『해외사료총서』15—일본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Ⅲ—, 국사편찬위원회, 2007.
朴徹庠, 「朝鮮時代 金石文 자료의 정리에 대하여」, 『大東文化硏究』 10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_____, 「朝鮮時代 金石學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許興植, 『高麗佛敎史硏究』, 일조각, 1986.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jsp/aa/InfoView.jsp?aa10no=kh2_je_a_vsu_22716_001

【Abstrac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Buddhist Data in the *Geumseok Jipcheop*

Jung, Byung Sam*

Geumseok Jipcheop is the earliest collection of data containing the full aspect of the stelae among the collecting Korean stele insciptions. It contains full data of stone rubbing stela insciptions datas. *Geumseok Jipcheop* is consisted of more than 1800 stelae stone rubbings in 226 volumes, and now 219 volumes are preserved at Kyoto University.

Geumseok Jipcheop contains Buddhist stelae as the item of 'temples' among 34 items. A total of 101 Buddhist stelae were included in *Geumseokrok*, which assumed the list of *Geumseok Jipcheop*, of which 88 remain. It contains 3 stelae which are not included in 'temples' item. The Buddhist stelae included *Geumseokrok* are 5 stelae of Silla, 28 of Goryeo, 68 of Joseon, so 101 in total. The existing Buddhist stelae are 2 of Silla, 18 of Goryeo, 68 of Joseon, so 88 in total. Three stelae are exist on the list but are not real. The four stelae are woodblock prints, not stelae.

Although Silla and Goryeo datas included in *Geumseok Jipcheop* are not sufficient compared to other stela collections such as Geumseokcheongwan and Daedong Geumseokseo. Geumseok Cheongwan contained 59 Buddhist materials, including 9 Silla, 37 Goryeo, 13 Joseon, and Daedong Geumseokseo a total of 95 Buddhist steles, including 11 Silla, 69 Goryeo, and 15 Joseon. The fact that Buddhist stelae contained in *Geumseok Jipcheop* were small before Goryeo dynasty is the result of a relatively focused collection of Joseon dynasty data. In the case of Buddhist stelae in Joseon dynasty, there are far more materials in *Geumseok Jipcheop*.

Geumseok Jipcheop contains 10 Buddhist stelae of Joseon dynasty, including the Buddhist stelae to the Songpadaesa stela of Yongyeonsa temple, whose existence is not yet known. Although the contents of the inscription are known, the first data to be known are 11 Buddhist stelae of Joseon dynasty, including the Wanheodaesa Seokjongmyeong of Bohyeonsa temple.

* Emeritus Professor, Dept. of History & Culture, Sookmyung Women's Univ.

Those stelae are situated at quiet local areas such as Bohyeonsa temple in Myohyangsan mountain.

As a result of comparing stelae, *Geumseok Jipcheop* is generally meaningful as the closest data to its original form. This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ose who edited and produced *Geumseok Jipcheop*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data and to produce the original data in the original form as much as possible. The meaning of the Buddhist stelae in *Geumseok Jipcheop* should be highly appreciated in that they are high-quality stone rubbing datas that faithfully show the original appearance of stelae by editing them in an original data.

Keywords: *Geumseok Jipcheop,* stela stone rubbing, *Geumseokrok,* temples, stela of venerable, stela of the history of a temple.

접수일: 2022.09.26.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14.